

# “정당 득표율 3% 잡아라”

## 가정당·기독교당 등 원내 진출 시도... ‘종교 정당’ 선전 주목

18대 총선에서 종교를 기반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평화통일가정당(가정당)과 기독교사실천당(기독교당)이 정당 득표율 3%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며 원내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5곳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가정당은 통일교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려진 정당. 물론 가정당에서는 통일교와는 무관한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정당 총재이자 비례대표 1번을 맡고 있는 박정환씨는 현재 문선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사돈이며 통일교를 비롯해 세계일보 회장의 사돈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정당은 곧 통일교의 정계 진출 교두보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정당은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슬로건 하에 ▲3차녀 가정 1인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군면제 ▲신호주제 제정

및 변성(姓) 금지법 ▲한일 해저터널과 베링해 터널건설을 핵심공약으로 내놓고 가족행복특별법 제정 ▲간통죄 처벌 강화 ▲출산장려정책 -산전 및 출산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작성한 선거 유세를 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에서 가정당 후보들은 저마다 선거사무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용 홍보차량을 동원해 당 홍보에 치중할 예정이다. 이는 상당수의 후보가 선거자금 부족으로 홍보차량이 없을 뿐 아니라 선거사무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보다도 훨씬 나은 상황이다.

가정당 측은 지난 대선의 유효투표 2천 360만 표를 기준으로 3%가 70만 표 안팎이므로 통일교인을 총동원하고 각 후보들이 조금만 역량을 발휘하면 3% 확보를 통한 비례대표 의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를 바탕으로 한 또 다른 정당은 기독교사실천당(기독교당). 이 당은 일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 만든 정당으로 가정당에 맞서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 정치계의 일반적 평가다.

기독교당은 ▲사람의 기독교정신 국가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국가 ▲화해와 나눔의 복지사회 국가를 ‘3대 비전’으로 내걸고 서울 금천, 서울 동작구, 충남 당진군에 지역구 후보 3명과 비례대표 후보 10명을 각각 등록했다.

기독교당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맡겨받은 자와 같이 병들어가는 만큼 기독교 조직의 정치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책임”이라며 “지난 2004년 총선 참패를 거울삼아 이번엔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반드시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민주-한나라 초접전지 공략 전략

### 민주당 ‘관권선거’ 제기 ‘견제론’ 목청

통합민주당은 7일 남은 이를 동안 정부여당의 관권개입 문제를 집중 제기, 견제론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최대화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 오차 범위 내의 초경합 지역이 50곳 안팎으로까지 늘고 있다고 판단, 수도권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10여 년간의 선거 경험을 놓고 볼 때 수도권에서 지지층 결집도가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이 유세한 것으로 판단, 지지층 결집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7~8%포인트 이상 이겨야 실제 투표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초박빙 지역은 대부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호남권 유권자들의 투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도 ‘견제론’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관권선거’ 논란을 계속 제기했다. 청와대와 정부, 경찰, 검찰,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로 뭉쳐 ‘야당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야당 죽이기가 시작됐다”며 “이 대통령이 선거 막바지에 2인자의 선거 현장을 방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뒤 “그럼에도 선거위가 관권개입을 묵인·엄호할 때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손 대표는 이날 총로 유세에서도 “만약 한나라당이 3분의 2 국회를 차지하면 15년의 압박을 보상받기 위해 최소한 15년 정권을 연장하려는 음모가 이번 총선에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초조하고 불안해서 관권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합지역의 경우 여

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7~8%포인트 이상 이겨야 실제 투표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초박빙 지역은 대부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호남권 유권자들의 투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총로 유세에서도 “만약 한나라당이 3분의 2 국회를 차지하면 15년의 압박을 보상받기 위해 최소한 15년 정권을 연장하려는 음모가 이번 총선에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초조하고 불안해서 관권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나라 수도권 당력 집중 ‘막판 굳히기’

4·9 총선 이틀 앞으로 다가온 7일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초접전지 공략에 부심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합지역 50여 곳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 수도권에서는 통합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맞서 정치신인들이 약진고투를 하고 있으며, 영남권에서는 ‘친박(친 박근혜)’을 내세운 무소속 후보들과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또 대전·충남지역에서 자유선진당 바람에 고전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는 당력을 집중, ‘막판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재섭 대표를 비롯해 김덕룡·맹현규 의원 등 중진들로 구성된 ‘119 유세단’이 고공작전을 벌이고, 각 후보들은 보수층의 집결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정부 심판론’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서울에서 출마한 한 후보 측 관계자는 “17대 총선과 16대 대선 등에서 반한나라당에 섰던 유권자들이 ‘참여정부 실패’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어서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견제론에 대한 호응도도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남권에서는 ‘친박’ 바람 차단이 선거

운동 막판까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박희태 공동선대위원장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종용 부산선대위원장의 활동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충청권에는 대중적 인기 많은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근영씨를 투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자당 후보들에 대한 상대 당 후보들의 집중 견제가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정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도당별로 상대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부동층 잡고 표 지켜라”

#### 광주·전남후보 막판 총력전... 투표 독려·선거 감시 강화

4·9총선이 코앞에 닥쳐오면서 광주·전남 지역 각 후보 진영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확보해 온 지지세력을 빠짐없이 표로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 마지막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격전지를 중심으로 할 일부 선거구에선 불법인쇄물 배포를 비롯 흑시 있었지 모를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정선거감시단을 조직, 밤샘 감시체제가 들어가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 목포에 출마한 무소속 박지원 후보 캠프는 투표일을 이틀 남겨둔 7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하는 등 그동안 다져온 지지기반을 표로 연결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박 후보 캠프는 또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유인물이나 금품이 아간에 살포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20~30대 자원봉사자 4명이 1개 조로 구성된 모두 5개 조의 ‘청렴감시단’을 조직, 비디오와 카메라를 들고 아파트 입구에서 밤샘을 하는 등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갔다.

정영식 후보 캠프도 선거운동원과 연고자를 총동원해 지지세력들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선거 전날 밤중에 금품이나 후보비방 유인물 등이 배포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선거감시단’을 조직해 거리를 순찰할 계획이다.

광주 남구에서는 민주당 지방분 후보와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20여 명의 젊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부정선거감시단을 조직, 24시간 남구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을 돌며 불법 유인물 배포에 대비하고 있다.

또 동구의 민주당 박주선 후보와 북구갑의 강기정 후보 등도 선거 막판 여수선한 틀을 타 각종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자체적으로 가동중인 부정선거 감시단을 대폭 강화, ‘클린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후보들도 막판 부정선거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각종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부동층 흡수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으며, 일부 농·어촌 선거구의 경우 나이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한 지지자를 투표장에 데려가기 위한 ‘교통 수단 운영 방안’도 불법이긴 하지만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부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해온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도 농어촌지역이나 과열·경합지역 등 금품살포를 비롯한 불법 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특별감시반 편성,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광주지역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격전지를 중심으로 선거 전날 밤 지역 아파트 상가에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불법 유인물이 대량으로 배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을 총 동원, 이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4·9 총선을 이틀 앞둔 7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선대 캠퍼스에 ‘꼭 투표하세요’라고 쓴 비행선을 띄워 눈길을 끌고 있다. /위정경기자 jrwi@kwangju.co.kr

### 내일 오전 6시부터 투표... 이렇게 하라

#### 2장의 용지에 기표... 촬영은 안돼

4·9 총선 투표는 9일 오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광주 333개소, 전남 859개소 등 전국 1만2천24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증명서에는 사진이 붙어 있어야 한다. 도장은 필요없다. 특히 사소한 실수 때문에 소중한 표가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이 끝나면 2장(흰색, 연두색)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후보자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명을 찍으면 된다.

이어 기표소 앞에 들어가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한다. 지난 대선 때처럼 만년 기표봉을 쓰기 때문에 인주가 따로 없다. 그냥 찍으면 된다. 기표봉에 인주가 묻어있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찍어



보다가는 자칫 무효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마치면 흰색 투표용지는 흰색 투표함에, 연두색 투표용지는 연두색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 기표소에서 나올 때 투표용지를 제대로 접지 않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개투표로 간주, 무효표로 처리된다. /김지경기자 dok2000@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 시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

2008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 7·9 공무원 합격압도적 1위

= 합격성이 말하는 최고의 강의 =  
**79이론반 (개별연성)** \* 수필 윤스터님의 합격신화는 계속됩니다 \*  
**9급 광주지방직(5월 23일) 원전대비 백발백중! 문제 3000제 =**  
**결문제풀이반 (초특급합성)** \* 한빛 명강사진 직접출제! 전과목 교재 무료제공 \*  
**최단기 점수업그레이드 필수과목 =**  
**전과목 단과반개설** \* 과목별 전국 최고수준 구성 \*

★ 수시성립을 통해 개별학습방안 제시 ★ 테이빙을 통해 취약과목 완벽보완 ★ 절강, 보강시 동영상 강의로 보완  
 지금이 최적이 한빛고시학원에서 공무원 합격의 기회를 잡아라! 한빛고시학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2009년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완전폐지

★ 2009년 공무원시험 대비 주부/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

## 야간 <합격전략반> 개강

시간 : 19:00 ~ 22:00, 3개월원성, 40만원 (문의쇄도)

공무원수강 "한빛 들뜬"  
 -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으로 몰린다. -

비교거부! 원강의 강사진! 전국최고의 시설!

에비공무원 사관학교

# 한빛

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부구청알 234-0234

= 합격률 전국 1위 =

## 공인중개사 오전반 야간반

4월 첫진도 시작반

재직자 수강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재상담접수중

- ♣ 현대적 학습시설
- ♣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 ♣ 과학적 평가시스템
-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고객센터전화 080-0236-2468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남·48), 최영아(여·3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재능방송·한국경제TV·부동산TV출연 강사진!

개강 매월초 주야 합격 을 원하신다면 한 수강료, 집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출신을 선택하십시오.

**국비무료** 고용보험 기금근로자 교육비현금 현재접수중 ☎ 529-8111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인문과 심리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출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옆 도영빌딩  
 북구점 ☎ 529-8111  
 ▶ 개림동 구시사거리(충효동)대안빌딩 옆 정충빌딩 6층